

2023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 문학 -

심의일정

[1차] 행정심의
필수제출서류 확인
2022.11.01.~.11.23.



[2차] 전문가 심의
제출된 지원신청서(원고포함) 검토
~2022.12.23.

심의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장르	세부 분야	심의위원
문학	시	박형준(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신용목(조선대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이근화(서울과학기술대학교 외래강사), 정끝별(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재연(시인, 서울예술대학교 강사)
	시조	강계숙(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유성호(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용국(시조시인, 한국작가회의 이사)
	소설	강영숙(소설가), 이기호(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정용준(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정한애(소설가), 해이수(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아동문학 (동시)	김미희(동시작가), 송선미(시인, 세종사이버대학교 강사), 송찬호(시인)
	아동문학 (동화청소년소설)	김혜정(아동문학작가), 송미경(송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사, 동화작가), 홍종의(동화작가,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수필	심진경(서강대학교 교양학부 대우교수), 조강석(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홍용희(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
	평론	권희철(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 교수), 소영현(한국문학번역원 교수), 양경언(문학평론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희곡	노이정(연극평론가), 백하룡(극작가), 이미정(극작가)

세부 선정결과

- 1,000만원 정액지원 (* 시상금 방식 / 시상금 내 활동비 포함)

첫 책 발간지원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포함)
1	202301604	강보원	아주 조금 있는 문학	10,000,000
2	202302655	김본	슬픔은 자라지 않는다	10,000,000
3	202303959	김영식	소잘땃	10,000,000
4	202300415	김채원	서울 오아시스	10,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포함)
5	202300223	남현정	없음	10,000,000
6	202300347	남현지	거래처에서 배운 것	10,000,000
7	202303250	박래은	개와 자두가 있는 시간	10,000,000
8	202304228	여세실	빗달 수 없는 마음	10,000,000
9	202304719	여한솔	영원히 식물원 언제까지나 동물원	10,000,000
10	202302778	윤혜경	요괴도	10,000,000
11	202300825	이상우	그래요, 전 내년에도 여전히 사랑스러울 예정입니다.	10,000,000
12	202302549	이영은	비어름	10,000,000
13	202302218	이중원	꿈꾸는 기호학	10,000,000
14	202303488	전성현	파린	10,000,000
15	202300848	전영규	못다한 이야기는 더 많은 용기를 남기고	10,000,000
16	202300099	조은비	사랑해	10,000,000
17	202300989	한재범	분명할 거예요	10,000,000

○ 창작집 발간지원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포함)
1	202303095	김경훈	바람이 시작되는 곳	10,000,000
2	202304635	김민아	마녀의 마법에는 계보가 없다	10,000,000
3	202300670	김성민	수박 같은 집을 짓고	10,000,000
4	202304847	김소연	마지막 서랍	10,000,000
5	202301278	김유림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자	10,000,000
6	202301119	김진숙	봄의 설계도	10,000,000
7	202304225	김향라	첫눈이 온다구요	10,000,000
8	202301494	김현	물에 젖은 시집	10,000,000
9	202302054	김현숙	소가 똥 놀 때 말이야	10,000,000
10	202300178	김희진	오후에게 묻다	10,000,000
11	202300655	문진영	네버랜드에서	10,000,000
12	202300893	박소란	숨	10,000,000
13	202303134	박수정	아름다운 일과 먹고 사는 일 - 여성 노동자가 들려주는 오늘	10,000,000
14	202300348	백은선	비밀과 질문 비밀과 질문	10,000,000

연번	관리번호	선정자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활동비 포함)
15	202300341	성현정	큐브시티	10,000,000
16	202300265	손영희	세상의 두근거림은 다 어디로 갔을까	10,000,000
17	202303780	송경동	시인의 노점	10,000,000
18	202302371	신은경	임시 정부의 꼬마 신부	10,000,000
19	202301807	신해연	악어 시	10,000,000
20	202304866	이경희	복의 기원	10,000,000
21	202300638	이민진	거기 있는 것들	10,000,000
22	202304073	이신조	너의계절,나의날씨	10,000,000
23	202304697	이주란	사람들은	10,000,000
24	202301646	임지은	경계 문지르기	10,000,000
25	202300100	조용미	식물의 기분	10,000,000
26	202303433	주민현	넓어지는 세계	10,000,000
27	202301971	천수호	유리로 포장한 얼굴들	10,000,000
28	202304380	최고나	향수, 그 기억의 향기	10,000,000
29	202301730	최영효	우금치	10,000,000
30	202300952	최현우	외면하는 기쁨	10,000,000
31	202302146	한연희	딸기해방전선	10,000,000
32	202302271	현호정	고고의 구멍	10,000,000
33	202303437	황선애	푸른 비책의 노래	10,000,000

□ 심의총평(요약)

□ 시

○ 첫 책 발간지원

- 지원자들의 신청서와 작품에서 첫 책 발간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쓰고 싶었는지 고심한 흔적들이 역력했고, 새로움과 패기가 엿보이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만한 문학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며 평가했습니다.
- 시는 언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진실의 영역이기도 해서 단순히 '잘 쓴다'는 말만으로 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시가 아무리 뛰어난 표현과 인식을 드러내더라도 뜨겁게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면 그 시가 던진 질문은 곧 식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시인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길어 올리고, 그 삶의 무늬가 언어로 드러나는 그런 시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 당대의 현실과 내면의 목소리를 시적으로 승화하려는 시적 움직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다한 실험적 요소보다는 시가 가져야 할 서정성을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면서 코로나와 기후 변화 등이 야기한 재난에 대처하는 윤리적 성찰을 시적으로 탐색하는 우수한 시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젊은 시인의 시들을 통해 현재 우리 시단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시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시집 발간 지원이기에 시의 미래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적 징후와 그 시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 선정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했을 정도로 작품들의 질적 수준이 고르고 높은 편이었고 책 한권의 세계를 구현하기에 충분한 원고의 깊이를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언어가 도달하고자 하는 장소와 세계의 방향성에 대해 시 쓴 이 자신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첫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시인들에게서 특히 시라는 예술이 지닐 수 있는 운동성에 대한 자각을 읽고 싶었습니다.

○ 창작집 발간지원

- 뛰어난 역량을 가진 많은 작가들이 집필 계획을 통해 스스로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글 쓰는 '나'를 세우고, 지우고, 또 다시 짓는 일의 반복 속에서 구체적 형상, 집요한 관심, 담백한 진술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빛났으며, 스스로의 작품을 검열하는 매서운 눈을 가진 작품들이 많아 반갑고 놀라웠습니다.
- 정치와 역사, 현실에 관심을 보이는 내용이 눈에 띄었으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층위에서 자신의 미학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여전히 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시인들의 작업이 경이로웠습니다. 하나의 유행이나 주류를 갖지 않고 시가 본디 그래야 하는 것처럼 다양한 갈래들로 율창해진 느낌을 받았으며, 그 숲에서 가장 아름답게 자란 나무를 고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시인들 각자의 작업이 이뤄낸 성취를 가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시적으로 원숙한 기량과 짜임새 있는 시세계를 보여주는 시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세계나 시적 소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적 주제를 탐구하는 지원자들의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 현재 왕성한 시작 활동을 펼치며 지금 우리 시단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지원한 사업이었던 만큼, 다양한 시적 경향과 시적 연륜이 배어나는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작품의 우수성/완성도의 관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 자신의 기존 화법에 머무르지 않고, 쇄신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시적 에너지의 유무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화법과 세계를 만들기 위해 조용히 분투하고 있는 시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으며, 현재에 주어진 언어와 현실의 질서에 투항하지 않고, 미세하지만 분명한 틈과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시도하며 자신의 걸음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 시조

○ 첫 책 발간지원

- 작품의 우수성과 시적 완성도를 가장 큰 비중으로 살피면서 그 외에 문학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 신인으로서 그 동안 쌓은 이력이나 실적을 참고하여 계획의 충실성과 기대되는 성과를 평가 하였습니다.
- 창작집 발간에 필요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작품집의 의도와 전망을 창작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고, 첫 책 발간인 만큼 작품의 완성도 및 신진작가로서의 창작적 역량과 개성의 유무를 중시하였으며, 시적 발상의 신선함과 언어 형상의 독창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이 드러날수록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 전체적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시집 발간 계획과 취지 등의 작성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창작하게 될 작품의 성격과 특이사항 등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요강을 세우고 발간 과정도 정확한 일정과 방안에 대해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 시조의 정형률이 갖는 형식미를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참신한 언어의 사용을 통해 갱신한 예들은 현대시조의 가능성과 혁신을 예감케 하는 경향으로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게 하는 좋은 범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창작집 발간지원

- 문단의 중견 시인들을 평가하는 이 트랙에서는 문학적 우수성 및 역량을 가장 큰 비중으로 평가하였고, 그 역량 가운데 문학과 독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작품 세계의 고유성과 작가 자신의 시적 전망 및 창작 의도의 구체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집필 계획의 구체성 및 그 실행 여부를 중요시 하였습니다.
- 시조의 음보나 율격을 지키지 못한 작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형성은 완벽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발간 계획과 창작 의도, 특기사항 등을 정성스럽게 작성하였으며, 시적 성향을 보았을 때, 조금은 조심스럽고 소박한 주제가 주를 이루고 강력한 사회적 이슈나 주장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 현대시조의 장르적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 부족, 정형률이란 형식이 시적 발상 및 창작 의도에 어떻게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도 더러 있어 고루한 언어 사용이나 익숙한 형상화 방식을 반복하는 예도 적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문학적 기량을 갈고 닦는 작가적 치열함이 살아 있어 이미지의 참신성, 언어의 발랄한 사용, 긴장감을 잃지 않은 사물의 밀도 높은 투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입니다.

□ 아동문학(동시)

○ 첫 책 발간지원

- 작품의 우수성과 완성도 및 작가의 문학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몇몇 작품에서 첫 책이 갖춰야할 새로운 상상력과 개성적인 언어의 기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일상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그리거나 자연의 동식물이나 사물을 새롭게 관찰하여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작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 상투적이고 통념적인 인식이 구체적 상황이나 설득 없이 당위로 제시된 작품들, 교훈을 문학적 형상화 없이 노정시킨 작품들, 오래된 동시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 상황과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단선적이어서 공감하기 어려운 작품들 가운데에서 어린이 독자에게 다가가는 방법론적 모색을 생동감 있는 구체적인 정황에서 탐색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 소재나 시선의 답습에 동심적 상상력을 가두지 않은 참신한 작품을 찾고자 했으며, 신선한 시선, 새로운 해석이 담긴 시를 발굴하려 했습니다. 첫 시집이 주는 상징성을 구현할 만한 자랑스러운 작품집을 만나는 것은 독자들에게도 축복입니다.

○ 창작집 발간지원

- 어린이의 일상을 보여주는 생활동시가 주춤 대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참신한 발상과 주제의식, 기존 동시의 관습과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상상력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몇 작품이 그러한 전망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단순한 언어와 구조로 이루어진 동시가 1차 독자인 어린이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인 각자가 저마다 자리에서 개성적인 시도를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고정관념과 관습의 틀을 깨고 낯선 시의 풍경을 열어보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 어린이 독자를 고려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미학적 도전을 보이는 작품들이 반가웠으며, 무엇보다 유머를 잃지 않고 깊이 있는 자세로 현재의 생과 대상을 존중하며 동시의 품을 한 차원 끌어 올리는 작품들이 돋보였습니다.
- 우리 동시의 발전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적 상상력을 자유분방하게 담아낸 작품들을 만났을 때 심사를 떠나 독자로서 감상하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낯선 세계로의 초대와 실험적인 표현 기법들에 대한 도전은 거침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동문학(동화·청소년소설)

○ 첫 책 발간지원

- 첫 책에 기대하는 건 '새로움'이기에 작가의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시도'에 심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문학에서 볼 수 있었던 안정적인 작품 외에 색다른 결을 가진 작품들이 보였는데, 선정된 작가들의 꾸준한 작품 활동이 기대됩니다.
- 대부분 도전적이고 자신만의 색을 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뚜렷한 작품이 많았는데 판타지의 요소를 갖춘 신기하고 이상한 서사, 아이들의 심리적 성장을 다룬 서사들이 눈에 띄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 의식으로 혹은 유사한 정서와 기법으로 이끌고 간 점들이 좋았습니다.
- 첫 책 출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데 작품의 완성도와 작품의 구성, 편집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대상 독자층에 대한 정확한 눈높이 설정과 원고량 안배 등 책 출간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그에 걸맞은 참신한 창작이 필요합니다.

○ 창작집 발간지원

- 창작집 발간 원고들의 내용은 어린이의 생활과 사랑, 고민과 상담, 문제 해결, 세대 간의 문제, 신비로운 힘, 다문화, 젠더, 미래 사회, 인권, 고령화 시대, 신화와 역사, 판타지 등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조망된 폭넓음이 특징이었는데 이는 작가가 어린이를 피상적으로 추정하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삶을 고민하고 관찰하고 함께 살아낸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장편동화와 청소년소설은 작가의 이력이 말해 주는 대로 이미 완성도 면에서는 곧바로 출판과 직결되어도 무방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소설은 방대한 분량임에도 탄탄한 스토리라인과 명확한 주제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재의 다양성과 구성의 참신함이 앞으로도 동화, 청소년소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믿음이 갔습니다.
-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의미 있게 기억될 문학적 의미와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인상 깊었습니다.

□ 소설

○ 첫 책 발간지원

-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이채로운 캐릭터와 문체, 플롯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SF의 약진이

돋보였고, 기후위기 시대 개인의 윤리의식과 허위성을 날카롭게 톺아보는 소설도 있었던 반면 종래 한국 문학의 여러 형식을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작품 또한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 첫 책에는 창작자의 가장 생생하고 뜨거운 창작품이 모이는 문학적 가치가 있지만, 처음이기에 그만큼 서툴기도 하고 여러모로 글 쓰는 여건과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작 소설의 속명은 '새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엔 이야기의 새로움도, 시선이나 사유의 새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첫 책'에 이러한 새로움을 검비하고 있는지, 작가의 시선과 입장, 언어와 표현이 기성의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 전반적인 작품의 수준이 대단히 높고 다루고 있는 소재와 작품세계도 매우 다양했으며, 작품의 우수성과 완성도의 측면에서 볼 때 경력이 많은 작가들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단단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가진 신인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의 측면에서 데뷔 시점보다는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어떤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심의하였습니다.
- 첫 책 발간은 작가로서 한 세계의 문을 열고 나가는 축복이자 무대에서 오롯이 자신을 증명하는 최초의 과정이기도 하여 신인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차별적 실험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유심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등단 이후 '창작의 지속성'도 참고했는데, 스스로가 작가임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작품을 생산 발표하는 활동 이력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실험정신이 뛰어나고 문학적 시도에 두려움이 없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SF는 장르가 아닌 현상이라고 보일만큼 AI, 인공지능, 우주 공간 등의 소재적 차용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폭넓은 감수성, 감각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첫 책을 내는 신진들의 경우 실험성과 도전정신을 높이 책정하여 보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 집필계획도 평가의 주요소가 되었습니다.

○ 창작집 발간지원

- 이미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한 응모자들의 소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안정된 문장과 절제된 감정, 시의 적절한 주제의식 등 문학적 완성도도 높았습니다. 소재 면으로도 다채로운 시선들이 돋보였는데 이는 한국 소설이 이전보다 더 민첩하게 시대와 조응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고 형상화된 인물과 주제의식을 다시 되풀이 하고 있는 듯한 내용들, 반복의 문제일 것입니다.
- 책은 문화와 예술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동시에 미래 세대의 정신을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무형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창작자는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갖고 창작에 임하고 성실하게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문학적 가치와 의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글을 쓰고 책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 작품의 우수성과 완성도를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삼아 이미 많은 작품을 써온 작가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작품세계와 이어지는 개성이 확실히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지점들을 궁금해 하며 따라 읽게 되었고, 또 독자들에게 공감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전체적으로 실험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미래의 인공지능과 가상세계 등을 다루거나 반대로 역사에서 소재를 취하는 글들에서는 전과는 다른 접근 양상이 보였는데, 고무적인 지점은 작가들이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서적을 참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방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탄탄한 고증을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등단 이후 자신만의 세계를 일궈나가는 작가군의 목소리가 각기 다른 이야기로 분화되어 개성적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계급적 갈등 불안한 미래의 전망이 가장 눈에 띄는 서사적 흐름이었습니다. 개성적인 방식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의 경우 더욱 긴밀하고 아름다운 문학의 성취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문장과 플롯 구성을 가진 작품들은 기술적으로 성숙한 경지를 보여주지만 자칫 지루한 이야기로 읽힐 수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지양하고 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 수필

○ 첫 책 발간지원

- 첫 책을 발간하는 것은 자신만의 삶의 서사의 표정을 세계에 제시하는 출사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되기에 자기만의 인식, 의도, 도전적 자세 등을 증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소재 및 주체의식의 참신함, 문체의 개성, 구성의 독창성 등이 보이는 작품집에 적극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 첫 책 발간지원이지만 상당기간 수필을 써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응모작들이 많았으며, 대부분 생활 속 소재나 자신의 경험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인상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글들이었습니다. 수필은 개인적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읽을 만한 보편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재 선정의 타당성, 구체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능력, 잡기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감성과 사유에 호소하는 힘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회고적 성격의 에세이를 많이 쓰고 있어서인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삶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글들이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수필이라는 장르를 일상사에만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들도 보였으나, 이는 수필적 글쓰기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글쓰기 실험을 가능하게 하지만 자칫 수필이라는 장르의 양식을 벗어나 다른 장르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첫 책인 만큼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기만의 작가적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는 당대적이면서 새로운 글들에 주목하였습니다.

○ 창작집 발간지원

- 수필은 하나의 장르이지만 그 안에는 세부적인 여러 장르가 포함되어 있고, 일상의 체험에서 오는 소소한 느낌이 추가 되는 작품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글들을 아우르는 것이 수필 장르의 특징입니다.
- 세상에 많은 책들 속에 또 하나의 책들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특별한 책인가? 하는 질문을 염두에 두었으며, '오래된 새로움'이 엿보이는 작품, 새로운 인식과 발견의 노력이 드러난 작품에 주목하고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글의 특성상 요청되는 요건이 글의 성격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 기준만을 고집하며 심사하기 보다는 일괄적 기준을 정하되 수필 내에서 다시 나뉘는 글의 성격을 고려하며 구체성, 보편성, 문장의 수일성, 사유의 깊이 등을 고려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 다년간의 창작 경험을 쌓아온 작가들의 글이라 그런지 흥미롭고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보였으며, 작품집을 관통하는 키워드와 주제의식 또한 뚜렷했습니다. 나름의 개성과 참신한 기획의도를 갖춘 글들이 많았으며 수필이라는 장르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우세 장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평론

○ 첫 책 발간지원

- 문학 텍스트 생산 현장에서 점멸하는 특이점의 순간들을 포착하려는 성실한 시도들이 많았는데, 이 같은 성실성은 그 자체로 문학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매체변화나 독자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비평안에 포함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평론집의 체제 및 이후 활동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비평집이 한권의 단행본으로 묶였을 때를 예상하고 구성한 목차에서는 시의성 있는 주제, 짜임새 있는 구도, 문학·예술장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이 잘 드러난다 할지라도 정작 '제출 원고' 상에서는 기대했던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 않거나 그에 못 미치는 정도의 내용전개가 이루어질 때, 또한 이를 통해 구상한 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역량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엄격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첫 책으로서의 문학적 패기를 살피고자 했으며, 기성의 방식과 거리를 두고 좀 더 새로운 비평에 대한 고민을 담고자 했는가를 중심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최근 문학이나 문학 경향, 문화적 경향에 대한 비평가 자신의 입장이 피력된다고보다, 현실(문학, 문단, 문화적 상황)과의 거리를 고려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작품 독해를 제시하고 있는 듯한 비평문이 많은 편이었는데 문학적 지형도 내에서 어떤 위치성을 가질지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첫 비평집'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창작집 발간지원**

- 지원작이 동시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하게 가늠하였습니다. 지원자의 논의가 최근 문학 담론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지 않고 전개됐을 때 자의적으로 주제를 설정했다는 인상을 전하기 쉽고, 그로 인해 해당 논의가 시의성 없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해당 글을 단행본으로 만나야 하는 이유 및 그 의의를 설득해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 지원 원고의 성격을 보면, 일관된 키워드나 주제 혹은 비평관이 뚜렷한 원고보다는 여러 성격의 글을 한 데 모은 경우가 많은데 비평 작업의 성격 상 추후적 앤솔로지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해도 전체를 아우르는 글이 제출하는 글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품집 구성의 주체 및 기획의도에 대한 개요가 있지만, 작품집을 관통하는 키워드나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어서 기 발표문과 집필 계획이 좀 더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가 된다면 완성된 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글의 형식에 있어 작품론이나 그 보다 짧은 리뷰 형식의 글이 많은데, 이러한 글의 존재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러한 글을 모은 비평집의 독자를 누구로 상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장르적 특성이든 문학적 글쓰기의 형식이든 왜 지금 이곳에서 이러한 비평집의 발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지원작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희곡**

○ **첫 책 발간지원**

- 작가들의 도전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한 세상, 소외된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독자들이 희곡집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기획 포인트도 눈에 띄었는데 공연 대본이 아닌, '읽는 희곡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도 희곡의 기본기가 충실한 작품에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만, 선정되지 못한 작품들도 장점이 많으므로, 시간을 갖고 퇴고하면 좋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대사의 거대한 사건들에 천착한 작품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리서치 기반의 작품들과 더불어 사회적 사건들의 트라우마가 개인에게 내면화하는 상황에 대한 포착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단면 묘사 등 다양한 결의 작품들, 각자가 지닌 문제의식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제출된 희곡의 완성도와 출판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작가의 창작 이력 및 활동, 서술된 집필 계획의 구체성 등을 살폈습니다.
- 전체적으로 고른 극작술을 보여 주었습니다. 치밀한 인물 형성 및 안정적인 극 전개를 보여주는 작품들도 여럿 보였고, 특히 무대에 대한 깊은 이해로 쓰인 작품들도 보여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대와 골방을 넘나드는 팽팽한 긴장감의 작품들이었습니다.

○ **창작집 발간지원**

- 적은 편수에도 안정적인 전개와 대사 등 훌륭한 극작술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열개와 인물 만들기로 희곡 읽기의 재미를 선사함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문학성이 가득한 작품들이 많아서 희곡이 단지 공연의 설계도 뿐만 아니라 문학의 한 장르로, 오롯이 희곡 그 자체로 예술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기쁜 기회였습니다.
- 지원작들의 공통적인 경향은 단순한 작가의 작품 모음집이 아니라 테마가 있는 희곡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어문 저작물로의 희곡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고른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요즘 시대상을 반영한 소재를 담은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인공이 능동적이지 않고 사회현상 속에 무기력하게 놓여서 사념에 그친 대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나, 플롯이 강한 이야기가 눈에 띄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상대적으로 독자가 주인공의 주제 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치열하게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작가들이 없지 않았지만 원고의 완성도와 기대성과면에서 볼 때 창작 역량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